「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4호(2022. 2): 401-433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5 No.4 (February 2022)
http://dx.doi.org/10.20484/klog.25.4.16

소득에 대한 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수준(GRDP) 차이를 중심으로*

김 필**
최 한 별***

국문요약

주민의 행복은 지방정부가 추구해야 할 성과이다. 지역의 경제수준은 소득 내지 부(富)의 정체성으로 작용하여 상대적 소득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소득에 대한 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경제수준(GRDP)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소득과 인식소득의 차이로 측정한 소득에 대한 열망은 행복에 유의미하게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GRDP가 중간 수준인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주민들의 소득에 대한 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GRDP가 낮거나 높은 수준인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주민들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의 경제수준에 따라 소득에 대한 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달리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행복, 소득, 소득에 대한 열망, GRDP, 경쟁가설분석

Ⅰ. 서론

소득은 행복(happiness)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소득과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Easterlin(1974)의 논의 이후, 소득의 상대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Oswald, 1997; Lane, 2000; Blanchflower & Oswald, 2004). 그 중에서도 소득에 대한 열망(income aspiration)은 자신이 가지는 소득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개념으로서 소득-행복의 관계를 설명할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Stutzer, 2004). 소득에 대한 열망은 행복에 대체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Stuzer, 2004; Killingsworth & Gilbert, 2010; Kahneman et al., 2006),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욕구이론, 사회비교이론, 적응이론, 사회적 정체성 등의 개념이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다. 즉, 현재 시점의 개인이 스스로 갖지 못한 소득에 대한 욕구, 개인이 자신과 비교할 타인에 대한 설정, 현재 소득에 익숙해지는 조건, 그리고 개인이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A03087287).
** 제1저자
*** 교신저자

스스로 자신의 소득 혹은 부(富)와 일치시키는 정체성의 외연 등이 소득-행복 관계의 분석 대상이 되어왔다.

소득-행복의 관계는 초기에 국가 단위의 연구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지방화(localization)의 영향으로 인해 개인이나 지역 단위의 연구로서 주민의 소득과 행복 간 관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일어나고,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지며 소득과 소득에 대한 열망에 대한 행정 지역 단위의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소득과 부(富)가 달리 보이는 사회 풍조가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소위 '부자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스스로 소개할 때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를 강조하기도 한다. 소득에 대한 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적 수준, 예를 들면 지역내총생산(GRDP)의 크기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짐작되는 부분이다.

특히 행복을 일종의 지방정부 성과라고 보는 최신의 경향(강혜진·이민아, 2019; 구교준, 2020)을 따른다면, 더욱 기존에 강조되어왔던 경제성과와 같은 경성성과(hard performance)가 행복과 같은 연성성과(soft performance)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다른 성과 변수와 달리 재화와 서비스를 단순히 많이 소비한다고 증진되지 않으며, 이는 정부의 예산과 서비스 투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행복 문헌이 국가 단위로부터 개인, 지역 단위로 확장되며 지방정부의 성과로서 주민 행복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국내 문헌은 정부가 어떤 종류의 예산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민이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실증연구가 대부분이고, 상대소득 혹은 소득열망을 다룬 연구가 적은 편이다.

한편 GRDP는 비록 지방정부가 좌우할 수 있는 변량이 한정되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경제 성과 중 하나로 꼽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종희, 2010). 기초자치단체들은 GRDP를 높이기 위해 각종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면 경남 하동군은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을 통해 도내 GRDP 2위를 달성하여 언론에 홍보하였다(뉴시스, 2022). 또한, GRDP에 의한 지역 간 부의 격차는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높은 편이다. 예를 들면 2019년 기준 강남의 GRDP는 71조 8,530억 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1위이며, 강북구의 22배이다(문화일보, 2022).

본 연구는 소득에 대한 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GRDP를 중심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소득에 대한 열망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그 영향의 방향과 크기는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GRDP를 세 단계, 즉 낮은 지역경제수준, 중간 지역경제수준, 높은 지역경제수준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다만 국내 연구가 희소하고, 저자들의 수준에서 상식적인 가설을 찾기 어려워 경쟁가설모형(Analysis of Competing Hypothesis, ACH)을 사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의 타인과의 비교 혹은 소득에 대한 열망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 혹은 소속 집단(membership)으로 설정한다는 가정을 하는데, GRDP를 후자에 가까운 개념으로 포섭한다. 즉, 지역 주민은 자신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GRDP와 자신의 소득 정체성을 상당 부분 일치시킨다고 가정하고, 소득에 대한 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GRDP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기존 문헌의 검토

1. 행복(happiness)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부 정책의 성과로서 행복

정부의 성과(performance)는 정부가 활동을 통해 사회에 미친 결과이다(Smith, 1996). 정부성과라는 주관적 개념은 필요로 하는 정책 혹은 연구 목표,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정부 성과개념을 정책과정에 초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분류하면, 첫째, 정부의 조직 및 인사상의 효과성이나 사무관리, 정보화 등 경영상태로 확인하는 관점(이창원 외, 1998), 둘째, 입법성과, 상하수도 보급률,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정부 운영의 산출(output)로 확인하는 관점(강형기·허훈, 1999), 셋째, 결과평가로서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만족도를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관점(이현국·김윤호, 2014)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은 정부 업무의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come)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활동의 본원적인 사명은 시민의 복리(welfare)이기에 정부의 업무과정이나, 산출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만족을 통해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시민의 만족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행복으로 측정된다는 측면에서 행복을 정책 활동을 통해 달성되는 정부의 성과로 여기는 연구(강혜진·이민아, 2019; 구교준, 2020)가 나타나고 있다. 즉, 행복이 정부 정책이나 행정 활동의 궁극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정부 기관의 정책과 행정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주어진 업무과정 수행과 1차 산출의 제공으로 이루어지지만, 정책설계자들은 정책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행복을 가져오는가를 염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활동이 시민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있다(이현국·이민아, 2014; 김병섭·강혜진·김현정, 2015; 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변미리·최정원, 2016; 신현재·김병섭, 2019; Ott, 2010; 2011; Jakubow, 2014). 정부의 정책이나 서비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위 연구 중 국내를 대상으로 한 상당수는 시민에게 직접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본 연구도 지역 단위에서 행복을 결과변수로 측정한다. 같은 국가의 서로 다른 지역의 행복을 확인하면,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고, 소득, 지방정부의 정책·서비스 등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본 연구는 후술하듯 지역별 경제수준의 차이에 따라, 행복의 원인변수인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느냐를 확인한다.

2) 행복의 개념과 측정

행복(happiness)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행복이 무엇인지 또 행복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할 것인가의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다. Nettle(2006)은 행복의 수준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순간적인 기쁨(joy), 즐거움(pleasure), 행운(lucky)과 같은 감정으로 개인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논의되는 개념이다. 둘째,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나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 개인의 전반적인 평가로 보는 개념이다. 셋째, 자기 계발, 자아실현을 통해 얻는 덕성주의(eudaimonia) 혹은 좋은 삶으로서 철학적인 평가로 보는 개념이다.

행복을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때, 그 의도가 시민들이 단지 단기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기쁨 같은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행복을 개인 역량의 발현과 자아실현을 통한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김현정, 2016). 즉, 만족(satisfaction) 혹은 흡족(contentment)과 같은 보다 지속적인 상태가 행복이며, 한 개인의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탁월(perfection)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 혹은 안녕이라는 관점이다(Rayo & Becker, 2007; Oishi, Diener & Lucas, 2009; 정지범, 2011; 우창빈, 2013). 그러나, 이 관점을 따를 때, 행복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다.

이에 상당수의 사회과학 연구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이나 삶의 만족도로 보는 경향이 있다(Diener, 2006; Veenhoven, 2013). 이 관점에 따를 때,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뿐만 아니라, 처한 상황과 환경, 신체 상태, 그리고 그에 느끼는 감정까지 영향을 갖는다면서, 주관적 안녕을 한 사람이 삶을 향해 갖는 평가와 느낌을 포함하는 개념(umbrella term)으로 본다(Diener, 2006; 김현정, 2016). 행복을 주관적 안녕으로 보면, 주관적인 개념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목표로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정지범, 2011). 위와 같은 흐름은 행복의 개념을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로 구분하고, 개인을 인간 후생의 평가 주체로 두어 행복 연구의 과학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감정을 대표하는 데 그치는 측면에서 비판이 있다(정지범, 2011; 김병섭 외, 2015; 김현정, 2016).

3) 행복의 영향요인

사회과학 문헌에서 행복을 다룬 실증연구의 상당수는 무엇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상황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다. 가족, 동료 및 이웃과의 관계, 직업 상태, 건강과 신체 상태, 개인의 가치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이다(Rath & Harter, 2010; Layard, 2011; Bok, 2011). 다수의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개별 요인을 살펴보면, 실업 상태는 음(-)의 영향을 미쳤다(Clark & Oswald, 1994, Winkelmann & Winkelmann, 1998; Clark, 2003).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분석 결과(강성진, 2010)에서는 나이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지만, 나이

의 제곱 항의 계수 값은 양수를 나타내어,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활 만족도가 감소하다가 일정 나이 이상에서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의 비선형 효과를 나타내며, 기혼·자가 소유자·여성이 미혼이나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이나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냈다. 나이, 기혼, 성별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독일의 사회경제 패널조사(GSOEP)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Frey, 2010).

둘째, 사회적 맥락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다. Veenhoven(1993)은 국가 간 비교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이 개인의 내면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생활 수준 및 문화적 맥락과 같은 환경에 따라 변화함을 밝혔다. 그 외 정치제도(Granato et al., 1996; Frey & Stutzer, 2000),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당파성(Alesina, Di Tella & MacCulloch 2004; Di Tella & MacCulloch, 2005), 사회적 규범(Stutzer & Lalive, 2004)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셋째, 정부의 서비스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투입하느냐에 따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상당하다(Frey & Stutzer, 2000; Jakubow, 2014; Ott, 2010; Ott, 2011; Veenhoven, 2012;, 김병섭·강혜진·김현정, 2015; 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이현국·이민아, 2014) 한편, 거시적으로 국가 레짐과 거버넌스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연구(한인섭·임채홍·김정렬, 2017)도 있다.

넷째, 소득이나 경제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의 행복까지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Easterlin(1974)이 제기한 소득과 행복 간의 역설적 관계 이후로,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뿐 아니라, 상대적인 측면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자신의 과거 소득 혹은 미래의 소득(Becker, 1974; Frank, 1985)이나, 다른 상대방과의 소득격차(Easterlin, 1974, 1995), 소득분배(Alesina et al., 2004; Oshio & Kobayashi, 2010; Oishi et al., 2011; Ferrer-i-Carbonell & Ramos, 2014; Delhey & Dragolov, 2014)까지 소득의 다양한 측면을 확인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아직 많은 연구는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객관적 조건과 상황에 주목한다. 즉, 효용이론이 효용을 소비의 함수로 설정하고 소비 행태를 통해 효용을 분석하듯이, 주관적 행복을 물리적 조건의 함수로 가정하는 접근을 한다(구교준 외, 2020). 그러나, 물리적 조건이 주관적 행복으로 연결된다는 단선적인 접근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요소 중 일면만을 보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행복에 대한 영향요인 중 소득에 주목하는 최근 연구는 단순히 많은 소득으로 행복이 증진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소득과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얽힌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즉, 자신의 소득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따른 영향을 주목한다. 특히, 소득에 대한 열망을 주목한 연구들은(Stutzer, 2004; Killingsworth & Gilbert, 2010; Kahneman et al., 2006) 절대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까지 행복의 영향요인으로 살펴봄으로써 설명력을 높이고 있다. 이에 소득에 대한 열망, 그리고 소득에 대한 열망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소득 열망과 소득수준에 대한 인식

1) 행복의 상대성과 소득 열망

실증연구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대체로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Blachflower & Oswald, 2004; Di tella & MacCulloch, 2006). 그러나,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Easterlin, 1974)'에 따르면, 소득이 높거나, 정부가 예산과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한다고 행복이 증진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연구는 소득이 높다고 더 큰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인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즉, 소득의 절대적인 수준뿐 아니라, 과거 수준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은 비슷한 교육 수준이나 나이 혹은 사회적 위치를 갖는 타인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소득수준과 자신의 소득수준을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하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준거집단의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떨어진다(Clark & Oswald, 1996; Blanchflower & Oswald, 2004; Ferrer-i-Carbonell, 2005; Luttmer, 2005; 김현정, 2016). 다른 성과 변수의 효과 측정과는 다르게 행복은 예산 투입을 절대적으로 투입한다고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득의 상대성이나 소득 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국내 실증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같은 맥락에서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주요 변수로서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는 연구도 상당하다(Alesina, Di Tella & MacCulloch 2004; Oshio & Kobayashi, 2010; Oishi et al., 2011; Ferrer-i-Carbonell & Ramos, 2014; Delhey & Dragolov, 2014; 이내찬, 2012; 김현정, 2016; 이연경·이승종, 2017). 이들 연구는 주로 소득 등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나 행복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OECD의 행복지수를 가구소득이나 소득 격차지수(quintile) 등에 회귀 분석한 결과, 각국의 행복지수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 격차지수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연상, 2012). 또한, 이연경·이승종(2017)은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모두 행복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 영향력은 주관적 계층의식의 경우가 더 크다고 한다. 다시 말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간의 '격차'가 행복의 주요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다만, 미국과 유럽에 사이에 그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연구(Alesina, Di Tella & MacCulloch 2004)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소득이나 경제규모가 증가함에도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현상(Easterlin Paradox)을 설명함에 있어 소득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그런데, 결국 소득불평등도 다른 사람과 자신의 소득을 비교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 과거,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만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열망하는 어떤 수준과 괴리되는 것에 주목하고 반응하는 것이다(효용의 내생적 상대성).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소득 열망(income aspiration)이다. 즉,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의 과거 상황이나 비교 대상이 되는 준거집단에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이에 따른 괴리에 주목하는 것이다. 실증연구에 따

르면 소득 열망은 더 높은 수준의 소득에 대한 열망으로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tutzer, 2004; Killingsworth & Gilbert, 2010; Kahneman et al., 2006).

Stutzer(2004)는 소득에 대한 열망 수준을 측정하면서, 소득에 대한 자기평가를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소득평가에 대한 접근법은 전통적 경제이론에서 개별 후생함수를 측정하는 접근법의 전통에 따라 개발되었는데, 질적으로 규정된 일련의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양적인 소득 범위를 응답자 개인이 적도록 하여, 소득과 예상되는 후생 사이의 기수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van Praag, 1971; van Praag & Frijters, 1999; Frey, 2010). 예를 들어, 개인이 "나의 상황에서 순가구소득으로 (__)은 매우 나쁘고 (__)은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다(van Praag, 1993)" 혹은 "우리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소득은 (__)이다(Keller, 2019)"와 같은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다. 응답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기대 수준에 반응하며, 이를 통해 소득 열망을 기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소득열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이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은 소득이 높거나, 정부가 예산과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한다고 증진되는 것이 아님을 많은 연구가 실증적으로 확인한다(Eaterlin, 1974; Oswald, 1997; Lane, 2000; Blanchflower & Oswald, 2004). 소득 관련 요인과 행복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이론은 욕구 이론(Need Theory)과 사회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이다(Schyns, 1998).

욕구이론에서 소득열망은 개인이 갖는 필요(needs)를 반영한다. 다양한 욕구이론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필요가 존재한다(Veenhoven, 2014). 먼저, 결핍욕구(Deficiency needs)는 음식과 거주지와 같은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 욕구(safety), 교제 욕구(companionship), 그리고 존경 욕구(esteem) 등의 단계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성장 욕구(Growth needs)는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과 같이 개인의 능력을 사용하고 계발하는 것이 해당한다. 이때, 소득열망은 욕구 이론의 두 가지 분류 중 결핍 욕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이 감소하는 성향이 있다.

한편, 사회비교이론은 "빈자들은 백만장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더 성공한 다른 거지를 부러워한다"[1]는 Bertrand Russel(1930)의 유명한 격언으로 설명할 수 있다. Schyns(1998), van Praag & Kapteyn(1973), Easterlin(1974), 그리고 Brickman et al.(1978) 등에 의해 발전되어온 사회비교이론은 인간의 행복이 삶의 질에 대한 기준과 인식된 삶의 상황 간의 비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사회비교이론에서 소득열망은 '행복의 역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절대 소득의 증가는 행복을 높이지만 모두의 소득이 증가할 때 행복은 높아지지 않는 현상은 개인의 소득열망이 소득의 증가와 비례해서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Easterlin, 1974; 1995; 2001).

1) Beggars do not envy millionaires, just other beggars who are more successful.

$$U_{i,t} = f(Y_{i,t}, Y^*_{i,t}, X_{i,t}) \quad \text{and} \quad \frac{\partial U_i}{\partial Y^*_i} < 0 \qquad \text{(수식 1)}$$

위 수식에서 개인 i의 t기의 효용은 t기의 실제 소득($Y_{i,t}$)과 열망하는 소득($Y^*_{i,t}$), 그 외 다른 요소들($X_{i,t}$)로 결정되는데, 이때, 소득의 열망 수준이 증가하면, 주관적 안녕이 감소한다(Stutzer, 2004).

3. 소득 열망과 지역의 경제수준

1) 소득정체성 형성 기준으로서 GRDP

소득 열망은 결국 자신이 처해있는 소득을 기대수준과 비교하며 발생한다. 또한, 소득에 대한 기대수준은 타인과의 비교에 주로 근거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Clark & Oswald, 1996; Blanchflower & Oswald, 2004; Ferrer-i-Carbonell, 2005). 개인의 특성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행복에 관한 하향이론에 따를 때,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따라 행복에 대한 인식 증가는 다르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절대적인 경제수준이 중요하나, 처한 여건의 상대적인 부분이 많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많은 연구가 타인과의 소득격차 혹은 소득분배 정도를 꼽고, 이는 소득 열망에도 영향을 끼친다. 관련하여, 김현정(2016)은 소득 불평등 인식이 행복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면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절효과로 확인하였다. 양재진 외(2016)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 상층으로 여기며, 상향이동을 경험한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강성진(2020)은 1인당 지역소득과 소비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음의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공평에 대한 인식은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나 사상, 계층구조, 정치제도, 역사적 상황, 개인적 이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전성표, 2006), 한 사회의 역사나 문화, 가치관에 따라 동일한 소득격차라고 해도 그 과정이나 결과가 달리 인식된다(김현정, 2016). 이에 동일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면서도 타인과의 비교가 가능한 물리적 환경을 지니는 지역 경제수준을 개인의 소득에 대한 열망에 있어 준거집단(reference group) 혹은 소속 집단(membership)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단위의 행복을 측정한다면, 주민이 속한 지역의 경제수준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지역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의 향상을 통해 시민의 후생을 높이고자 하는 접근을 하기에, 물리적 조건과 주관적 행복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된다(구교준 외, 2020). 다만, 아직 많은 연구는 지역 단위의 행복을 경제수준에 따른 불평등 인식 혹은 소득 열망으로 확인하기보다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만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엄영호·엄광호(2017)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확인하고, 최영출(2014)은 지역의 정책적 요인들이 어떻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구교준 외(2020)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이 주관적인 행복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으로서 지역 역량(regional capability)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개인 수준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소득 요인의 지역 수준의 소득에 따른 영향을 본격적으로 확인한다. 이때, 개인의 소득에 대한 열망은 소속 집단(membership)의 경제수준인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주목한다. GRDP는 일정 기간, 일정 지역 내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2) 소득열망과 행복 간 관계의 조절변수로서 GRDP

소득에 대한 열망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소득열망의 방향과 크기는 소속 집단으로서 지역의 소득 혹은 경제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역민이 지역에 느끼는 공동체 소속감 혹은 일체감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정한울 외, 2018). 전국 1,000명을 대상(만19세 이상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직업별 기준 비례할당)으로 지역정체성과 지역 인식을 조사한 정한울 외(2018)에 따르면, 광역시·도민으로서 소속감은 70%, 시군구에 대한 소속감은 65%에 달하며,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한국리서치가 2005~2015년 실시한 정체성 인식조사의 추세를 볼 때, 지역정체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체성(identity)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근거로 서로를 같은 집단으로 동일시(identification)하면서 다른 사람 혹은 집단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Lawler, 2015). 특히, 인종, 소득, 직업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유한 집단이 거주지를 분리하여 거주하는 거주지 분리는 기준과 정도를 달리하지만, 상당수 국가에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나타난다(Iceland & Wilkes, 2006). 한국도 점차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거주지 분리가 나타나고 있다(동아일보, 2022).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인종 간 분리를 대신하여, 주로 소득에 의해 거주지가 분리된다. 거주지역 자체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계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도록 전제하는 효과를 근린 효과(neighborhood effects)라고 한다(곽현근, 2007; 이상록, 2012; 양승호, 2014). 즉, 지역에 대해 느끼는 일체감은 지역 소득으로도 이어져, 지역의 경제수준을 곧 자신의 계급 수준으로 인식하게 된다. 한편, 거주지역이 주민에 미치는 근린 효과가 나타나는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 정책이나 연구의 목표의 맥락이나, 주민이나 정부 기관 등 행위자들이 근린의 범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경험적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곽현근, 2007; Chaskin, 1997). 일반적으로 근린 효과(neighborhood effects)의 발생 단위를 논의하는 경우, 본 연구의 분석단위인 기초지자체보다는 작게 본다. 하지만, 근린 효과는 지역보다 작은 단위인 근린(neighborhood)에서 도시(city) 수준으로 확장되는 다층적인 효과도 있다(Friedrichs et al., 2003).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경제수준에 대한 통계나 관련 연구의 상당수가 기초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등, 주민과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 지역에 대한 일체감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아도 의미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신이 속한 기초지자체의 경제수준을 다른 기초지자체의 경제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득열망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소득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크기는 거주하는 지역의 GRDP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경제수준을 크게 세 계층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계층별로 소득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음(-)의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설명하는 세 가지 대립되는 가설을 비교하여 경쟁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상위 계급과의 비교로 인한 부정적 영향(Darkside of Upward Comparison)이 존재한다. 사회비교이론에 따르면 비교는 윗방향(upward)과 아랫방향(downward)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아랫방향으로의 비교는 자신이 더 나은 상황에 처해있다고 믿도록하여, 자기강화(self-enhancement)를 가져오고, 윗방향으로의 비교는 주로 자존감(self-esteem)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개인이 소득이나 소비에 따른 효용에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에 많은 학자가 주목하였으며, Veblen의 과시적 소비나 Duesenberry의 상대 소득 가설 등을 공식화하여 양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외부효과가 주로 아래보다는 윗방향으로의 비교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Frey, 2010). 즉, GRDP가 가장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음(-)의 관계가 가장 강할 수 있다.

둘째, 중간 정도 소득을 갖는 지역의 소득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음(-)의 영향은 소득열망의 강도를 강조하는 원숭이 덫 가정(Monkey-trap Hypothesis)으로 설명할 수 있다. 원숭이 덫의 구멍은 원숭이의 손이 통과하기에는 충분히 크지만, 원숭이가 쌀을 움켜쥔 주먹이 빠져나가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다(Keller, 2019). 즉, 이뤄지지 않은 소득의 증가에 더 집중하는 사람은 같은 수준의 소득열망이라고 해도 그 강도가 더 셀 수 있는 것이다. 이에 GRDP 중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높거나 낮은 GRDP에 사는 주민들을 향해 윗방향, 아랫방향으로의 사회적 비교가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소득수준 자체에 더 열중하게 되고, 따라서 소득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음(-)의 관계가 가장 강할 수 있다.

셋째,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지역에서 소득의 행복에 미치는 음(-)의 영향은 쾌락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적응(Hedonic Adapt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적응이론(adaptation theory)은 행복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중 하나로, 높은 혹은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이 곧 적응하고 소득열망을 높인다고 본다. 소득열망의 강도를 강조하는 원숭이 덫 가설이 성취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 심리를 다룬다면, 쾌락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적응은 높은 소득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의 증가와 이에 따르는 새로운 소비는 단기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물질적 재화에서 얻는 추가적 효용은 점차 약화될 수 있다. 이를 적응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Pasrducci, 1995; Frederick and Loewenstein, 199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혼이나 신체장애 혹은 여가와 같은 사건들보다는 소득에 대해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ank, 1997; Frey, 2010). 이에 따르면 GRDP가 가장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높아지는 소득에 적응하는 과정이 빠르기에 소득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음(-)의 관계가 가장 강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 가설, 연구 모형,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독립변수인 소득에 대한 열망은 종속변수인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상황, 사회적 맥락, 정부서비스인데, 소득에 대한 열망은 이 중에서도 사회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이스털린의 역설'이 대변하는 행복의 상대성으로 인해 두 변수 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욕구이론에 의해 소득열망은 개인이 갖는 필요를 반영하고, 사회비교이론에 의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열망수준이 클수록 행복을 낮출 것이라 예상된다.

가설1: 소득열망이 높아지면 행복은 감소할 것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GRDP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경쟁 가설 분석(Analysis of Competing Hypotheses, ACH)방법론을 차용한다. 경쟁 가설 분석 방법론은 하나의 데이터에 대하여 다수의 경쟁 가설을 세우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1970년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추론의 오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한 방식이다(Heuer, 1999). 아직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분야에서 직관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을 미리 선정하기보다 경쟁하는 다수 선호 가설을 설정한 후 하나의 모형에서 분석해나가는 방식이다. 경쟁 가설 분석은 사전적으로 연구자의 입장에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단일 가설을 확인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증거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는 다른 가설과 연관되어있는 증거를 미리 판단된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오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 가설 분석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Heuer, 1999).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가설을 식별한 이후에, 각 가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의 목록을 만든다. 이후 가설의 상대적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유용한 항목을 식별한 후에 각 가설의 상대적 가능성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가설을 증명하기보다 반증하려고 하고, 결론의 증거에 대한 민감성을 분석한다. 결론을 보고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 뿐만 아니라 다른 가설의 상대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소득열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GRDP의 영향력 역시 아직 국내 문헌에서 자주 다뤄지지 않은 주제이다. 또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상위 계급과의 비교로 인한 부정적 영향, 원숭이 덫 가정, 쾌락으로서의 행복에 대한 적응이론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쟁 가설 분석을 본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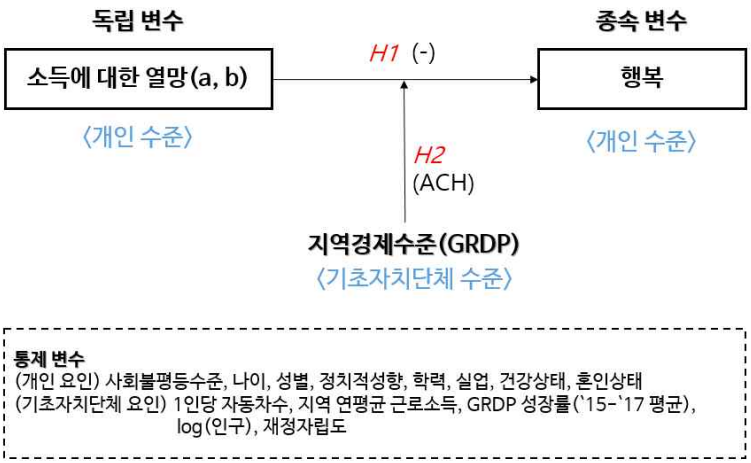
가설2: 지역경제수준에 따라 소득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가설2-1: GRDP가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강할 것이다
가설2-2: GRDP가 중간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강할 것이다
가설2-3: GRDP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강할 것이다

2) 연구 모형

이상 2장의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을 정리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소득에 대한 열망(a)와 소득에 대한 열망(b)는 측정의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하게 소득에 대한 열망을 측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따로 독립변수를 분리하여 표기하지 않았다. H2의 방향은 어떤 경쟁가설이 성립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호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인(leve 1)과 집단(level 2)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다층모형(multilevel analysis)을 사용한다. 두 단계로 이뤄져 있는 정보에서 모든 관측치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OLS 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호독립의 조건에 어긋난다. 즉, 어떤 상위 단계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개인의 관측값이 서로 비슷해지는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표준오차의 과소 추정, 즉 1종 오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층모형은 이러한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주민들의 공유분산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층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층모형을 추정할 때에는 집단(level 2)과 개인(level 1)의 비율이 최소 1:3 이상적으로는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Hair et al, 2011). 또한 집단(level 2)이 20개 이상 되어야 하며, 적어도 각 집단에 5개 이상의 개인(level 1) 표본이 있어야 한다

고 여겨진다(McNeish & Stapleton, 2014). 본 연구의 경우, 총 226개의 집단(level 2) 표본을 갖추고 각 집단당 할당되는 개인(level 1)의 표본 수가 최소 8개에서 최대 128개로 평균 28.5이다. 따라서 다층모형의 표본 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에 대한 전체평균중심화(grand-mean centering)과 집단평균중심화(group-mean centering) 중 후자를 선택하였다. 이는 소득에 대한 열망에 존재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집단 간 효과를 제거하는데 더 효과적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The University of Texas, 2015). 또한 최대우도 추정법(miximum likelihood, ML)과 제한된 최대우도추정법(restircted maximum likelihood, REML) 중 전자를 선택하였다. 이는 최대우도 추정법이 일반회귀모형을 사용할 때보다 다층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해당 데이터에서 얼마나 더 적합한지에 대한 추정량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층모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초모형의 급내상관계수(Interclass corelation coefficient, ICC[2])의 값을 1차적으로 살펴본다(강상진, 2003). 급내상관계수는 종속변수를 결정할 때 집단(level 2)의 소속 여부가 어느 정도의 변량으로 설명력이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지표이다. 이는 무조건적평균모형(unconditional means model)에서 추정할 수 있다(기초모형). 〈표 2〉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이 어떤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지에 따라 행복의 변량이 28.4%가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층모형의 적용은 통계적으로도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후 개인수준의 변수만 포함한 조건 무선절편모형(conditional random intercept)을 추정(Model 1)하고, 개인수준과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변수를 모두 포함한 조건 무선절편모형을 추정(Model 2)한다. 이때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에도 개인 수준의 계수값이 안정적이라면 모형이 강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를 포함한 조건무선절편모형을 추정할때에는, 소득열망을 2가지로 측정했으므로 소득열망(a) 조절효과를 포함한 모형(Model 3)과 소득열망(b) 조절효과를 포함한 모형(Model 4)를 추정한다.[3]

이상 모형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모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대표적 기준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값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절효과를 고려했을 때 모형적합성이 나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 모형의 적합도

	기초모형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ICC	0.284	0.232	0.214	0.216	0.229
LR test vs. mixed	χ^2=1379.19***	χ^2=941.61***	χ^2=806.88***	χ^2=819.97***	χ^2=890.06***
AIC	19789.65	19402.45	19403.35	19390.29	19471.43
BIC	19809.89	19503.68	19572.06	19565.75	19646.89

2) $\rho = \frac{\sigma_{u0}^2}{\sigma_{u0}^2 + \sigma_e^2}$, σ_{u0}^2는 2 수준 자료 잔차(residual)에 대한 분산이고, σ_e^2은 1 수준 자료 잔차에 대한 분산을 의미한다. 즉, ICC는 전체 설명되지 않는 분산에서 집단 변수가 차지하는 분량을 의미한다.

3) 두 가지 소득열망의 조절효과를 모두 포함한 경우에 다중공선성이 지나치게 높아져 제외하였다.

2. 변수의 측정과 출처

분석 대상 자료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에서 조사한 「2019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수집한 지역경제 및 인구 관련 자료이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설명은 〈표 2〉에 기술하였다. 「2019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표본 크기는 총 6,997명이었으나 본 연구의 집단 수준인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시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제외하고 총 6,300명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1:1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표본 추출 방법은 다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법이었다. 조사기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다. 「2019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국내 데이터로서는 드물게 조사자의 거주 시·군·구가 특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2〉 변수의 정의

변수 유형		조작적 정의	측정	자료출처
종속 변수		행복	본인의 행복상태 (0: 전혀 행복하지 않다- 10: 매우 행복하다)	2019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독립 변수		소득에 대한 열망(a)	실제소득(가구 월평균 총수입) 표준화값[4)] - 인식소득(인식하는 소득 분위) 표준화값	
		소득에 대한 열망(b)	실제소득(가구 월평균 총수입) 표준화값 - - 부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 가구소득) 표준화값	
조절 변수		기초자치단체 GRDP	2017년[5)]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	통계청(2017)
통제 변수	개인 수준 변수	실제소득	임대소득, 예금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수입 (1:월 49만원 이하- 15: 월 1,000만원 이상)	2019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사회평등	7개문항(삶의 질, 소득, 건강, 성별, 납세, 학벌에 따른 대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합산 (0: 매우 불평등 하다-10:매우 평등하다)	
		나이	만 나이	
		성별	남성(0) 여성(1)	
		정치적 성향	매우 진보적(1) 매우 보수적(5)	
		학력	대졸 미만(0) 대졸 이상(1)	
		실업	취업(0) 무직(1)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1) 매우 좋다(5)	
		혼인상태	미혼(0) 배우자있음 (1)	
		시군구 거주년수	현 시군구 거주개월수÷12	
	지역 수준 변수	1인당 자동차수[6)]	자동차등록대수÷주민등록인구 통계시점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이륜자동차 신고대수는 제외)	통계청(2019)
		지역 연평균 근로소득	급여총계금액÷급여총계인원 연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국민연금공단 (2019)
		GRDP 성장률 (2015-2017 평균)	(당해년도GRDP÷전년도GRDP)*100	통계청(2019)
		log(인구)	log(주민등록상인구)	통계청(2019)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	통계청(2019)

4) 단, 표준화 값: $\frac{(X-m)}{sd}$

1)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행복의 경우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의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학자가 의문을 던져왔다(Kozma & Stones, 1980; Helm, 2000). 지금까지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측정, 개인의 행태에 의한 측정, 자기기입식 측정,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점수 등이다. 이 중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측정은 전문가의 질과 경향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고 비판받아왔다. 개인의 행태에 의한 측정은 해당 행태를 측정하는 상황과 피측정자의 성향 등에 따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역시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에서 지적이 있다. 반면 자기기입식 측정은 앞서 논의한 측정 오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쓰여왔다(Kozma & Stones, 1980).

행복을 측정할 때 행복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나은지, 혹은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와 개인 단위를 종합하여 행복을 판단하는 만큼, 마찬가지로 집단 단위에서의 행복을 연구한 선행 설문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먼저 초기 행복 연구가 집중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국가별 행복 지표를 참고한다. 대표적인 국가 행복 지표는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y)와 갤럽 세계 설문조사(Gallup World Poll)가 있다. 세계 가치 조사에서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당신은 '아주 행복하다', '그럭저럭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아예 행복하지 않다' 중에 어떠하십니까?[7]"라고 묻고 있다. 다만 국가별 주관적 웰빙을 보고할 때에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합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갤럽 세계 설문조사에서는 "사다리의 맨 위는 당신에게 가능한 최고의 삶을 나타내고 사다리의 맨 아래는 당신에게 최악의 삶을 나타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8]"라고 묻고, 이를 삶의 만족도로 측정하고 있다. 즉, 행복,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을 분리하여 보고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학술 문헌에서의 측정 방식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경제 이론들은 현시선호이론에 따라 관찰되는 선택의 조합을 통해 설명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현시선호에 의한 측정이란 국가 단위에서 당해연도 소비된 품목의 조합 등으로 행복감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시선호로 측정된 행복감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일본 대상 실증연구(Easterlin, 1995), 개발도상국과 달리 부유한 국가의 경우 소득이 현시선호로 측정된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

5) 2017 이후 기초자치단체 GRDP는 일부 결측이 있어 일괄적으로 2017년도 값을 사용함

6) 자동차는 비교적 고가품으로 대표적인 내구재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민감하므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추이는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통계청, 2022).

7) "Taking all things together, would you say you are (i) Very happy, (ii) Rather happy, (iii) Not very happy or (iv) Not at all happy."

8) "Please imagine a ladder, with steps numbered from 0 at the bottom to 10 at the top. The top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best possible life for you and the bottom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worst possible life for you. On which step of the ladder would you say you personally feel you stand at this time?"

치지 않는다는 실증연구(Frey & Stutzer, 2002) 등 현시선호이론을 반박하는 결과들이 상당수 나타나면서 많은 연구가 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의해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강성진, 2010; Frey & Stutzer, 2002). 국내 문헌의 경우 초기의 연구는 Campbell(1976)과 같은 서구의 측정 양식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후에는 행복, 삶의 질, 삶의 만족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측정 도구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다(김명소·한영석, 2006). 최근에는 지역 주민과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삶의 질(Quaility of Life)에 대한 연구에서 행복을 비롯한 안녕감에 대한 논의의 질과 양이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다(고명철·최상옥, 2012). 종합해보면, 행복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측정하되 행복 자체를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을 차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응답자에게 '귀하는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의 질문을 통해 '0(전혀 행복하지 않다) - 10(매우 행복하다)'로 행복을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소득에 대한 열망은 두 가지로 측정되었다. 소득에 대한 열망(a)는 실제소득의 표준화값에서 인식소득의 표준화값을 제한값이다. 실제소득은 현재 함께 사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으로 임대소득과 예금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세후 소득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자는 1(월 49만 원 이하)부터 15(월 1,000만 원 이상) 중 하나를 택하도록 설계되었다. 인식소득은 스스로 인식하는 소득 100분위로서 1(10%)부터 10(10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실제소득과 인식소득에 대하여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표준화한 값을 뺄셈하였다. 이러한 표준화된 값에 의한 계산은 주관적 설문을 종합한 지표(index)의 생산에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세계은행이 생산하는 세계거버넌스지표(World Governance Indicators, WGI), 세계경제포럼이 생산하는 글로벌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지표값의 추출은 단순히 소득에 대한 열망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 단년도 설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common source bias)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소득에 대한 열망(b)는 같은 방식으로, 실제소득의 표준화값에서 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에 대한 세후 월 가구소득[9]을 표준화값을 제한 값으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소득에 대한 열망에 대한 측정은 Stutzer(2004)에서 소득에 대한 자기평가를 변수로 사용한 방식, Keller(2019)가 필요한 최소소득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을 한 방식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3) 조절변수

GRDP는 한 지역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

9) 이때 부자의 기준에 대한 세후 월 가구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응답치가 존재하였다. 저자들은 소득에 대한 열망을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계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소득에 대한 열망(b)과 비슷한 결과값을 얻었음을 밝힌다. 다만 자산에 관련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후속 연구에 맡긴다.

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통계이다. 과거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대신 지역민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도 많이 사용하였다. GRP는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의미한다. GRDP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에 대응하는 지역 단위의 지표로 지역 내 발생한 소득이 어느 지역의 주민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한편, GRP는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에 대응하는 지역 단위의 지표로 지역 주민에 의해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국적 개념의 지표보다 영토개념의 지표가 국가의 경제수준을 잘 나타낸다는 평가에 따라 GNP보다 GDP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처럼, 지역의 경제수준을 볼 때, GRP보다는 GRDP를 더 많이 활용한다.

GRDP는 지역경제수준의 진단을 통해 지역경제 정책 연구, 정책분석 및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지역 간 경제수준의 비교와 국가균형발전의 지원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는 등 지역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GRDP는 지역별로 발생한 생산 측면의 부가가치이므로, 발생된 소득의 지역 간 이전을 통해 어느 지역의 주민에게 귀착되는지 나타내는 분배 측면의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GRDP가 지역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의 소득수준을 파악함에 있어서 UN이 국민경제수준 측정을 위한 표준체계로 권고한 국민계정(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의 개념에 따라 추계한 GRDP가 다른 지표보다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개념과 추계방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강인재 외, 2007; 김종희, 2010). 이에 따라 다수의 연구(김종희, 2010; 박완규·김두수, 2014; 이경영·정문기, 2021)가 GRDP를 지역경제수준으로 보고, 지역 간 비교를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GRDP의 경우, 지역의 부가가치가 어느 지역의 주민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역의 주민 수로 나눈 1인당 GRDP로 지역의 경제력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김성주·이선영,2006; 임성일, 2013; 김을식·이지혜, 2015). 즉, 주거인구가 적고,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 1인당 GRDP가 높게 나타나 실제 소득과 일치하지는 않는 한계가 있다.[10] 물론 총계로 측정한 GRDP의 경우에도 직장이 소재한 지역과 주거지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상당하다(김성주·이선영,2006; 임성일, 2013). 그러나, 지역별 개인소득을 추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표준화된 개념과 추계방법을 활용한 GRDP가 지역의 경제수준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GRDP와 개념적으로 동일한

10) 일례로 2019년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GRDP를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상징성이 있는 강남구가 1위(71조 8,530억원)인데, 1인당 GRDP는 도심에 있는 중구(4억1,748억원), 종로구(2억1,870억원)에 이어 3위(1억4,136억원)로 변화하여, 일반적인 상식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21). 같은 맥락에서 김을식·이지혜(2015)는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통해 분석할 결과, 1인당 GRDP가 일반인들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시도 단위로 비교한 임성일(2013)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1인당 GRDP는 전국적으로 중간수준인데, 소비 등 다른 기준을 사용할 때,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감을 보았다.

RGDP(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를 활용, 지역과 도시의 경제수준을 비교하고 있다(OECD,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의 소득수준 인식의 준거기준으로서 기초지자체 단위의 GRDP를 활용한다.

다만 시·군·구 GRDP의 경우 논문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2017년도 데이터만이 전체 공개되어있는 상태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소득 등 다른 변수가 측정된 2019년 데이터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가 결측 상태이다.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imputation)으로는 평균 대체, 마지막 측정값 대체, 관련 정보의 활용 등이 존재한다(Gelman & Hill, 2012). 2018년 데이터의 경우에도 울산광역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 전체가 결측으로, 이는 행정역량 등에 좌우되기 때문에 무작위 결측(missingness at random)이라기보다는 관측되지 않은 변수에 의한 결측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체 관측치가 존재하는 2017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마지막 측정값 대체'방식을 사용하였다. 2017년과 2018년의 기초자치단체 GRDP 데이터간 상관계수는 0.999로 이는 2016년-2017년, 2015년-2016년 간에도 동일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GRDP는 2017년 통계청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표의 시의성 문제, 통계작성인력의 부족, 생산계정 단독 작성 등의 문제가 지적된 이후로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17). 따라서 2017년도 GRDP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를 GRDP에 따라 상중하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수준에 따라 상중하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은 Weber의 전통에 따라 계층별로 사회 인식이나 생각, 생활양식이 동질적인 집단의 구분에 용이하여, 분류기준이 기계적이라는 비판에도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이현송, 2006; 강명세·마인섭, 2014; 김범준, 2016). 국가 간 경제수준을 그룹화할 때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IMF(2021)는 세계 여러 국가를 선진국(Advanced Economies)과 개발도상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으로 구분하고 있고, UN(2021)은 개발도상국 그룹에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추가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의 경제수준을 그룹화한다면, 5분위 혹은 10분위 구분으로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지역간 경제수준을 구분하는 본 연구에서는 3개 그룹 구분만으로 충분하다.

지표를 등급화하여 표현하는 기법에는 최댓값과 최솟값 차이를 동일한 간격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등간격(Equal Interval), 동일한 비율이나 개수 단위로 등급을 구분하는 등분위(Quantile), 같은 등급 내 편차를 최소화하여 단계를 구분하는 내추럴 브레이크(Natural breaks)가 있다(정민지 외, 2021; 이효진 외, 2021). 내추럴 브레이크는 대규모 재난 등급 산정 등 이상치(outlier)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 유리하다(이효진 외, 2021). 반면, 분위간 표준화를 사용하면,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강기춘, 2019). 경제수준의 그룹화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아야 의미가 있어, 소득분배지표로 사용하는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 등 모두 등분위에 의한 등급구분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본 연구도 3개 등급에 대한 등분위로 지역의 GRDP를 구분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고 논의된 변수로서 개인적 환경에 관한 변수인 소득, 사회불평등인식, 나이, 성별, 정치적 성향, 학력, 실업, 건강상태, 혼인상태 등을 통제하였다. 또한, 지역의 경제상황이나 경기상황에 반응하는 변수인 1인당 자동차수, 지역 연평균 근로소득, GRDP 성장률 (2015-2017 평균), 인구, 재정자립도 등을 지역 소득변수로서 통제하였다.

개인적 상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 선행연구 중 소득(Blachflower & Oswald, 2004; Di tella & MacCulloch, 2006)이나 불평등(Alesina, Di Tella & MacCulloch 2004; Oshio & Kobayashi, 2010; Oishi et al., 2011; Ferrer-i-Carbonell & Ramos, 2014; Delhey & Dragolov, 2014; 이내찬, 2012; 김현정, 2016; 이연경·이승종, 2017)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된 주제이다. 주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양(+)이며, 불평등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음(-)이다. 그 외 실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Clark & Oswald, 1994, Winkelmann & Winkelmann, 1998; Clark, 2003)이나, 나이, 성별, 학력, 건강상태, 혼인상태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도 각기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강성진, 2010; Frey, 2010; Rath & Harter, 2010; Layard, 2011; Bok, 2011).

한편, 정부의 정책이나 서비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국내 연구의 상당수는 시민에게 직접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허만형, 2014; 이현국·이민아, 2014; 김병섭·강혜진·김현정, 2015; 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변미리·최정원, 2016), 이에 따라 지역 단위 변수를 통제한다. 지역 연평균 근로소득, GRDP 성장률 (2015-2017 평균) 등의 변수는 지역주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거나, 경제수준 성장의 집계변수이며, 세입 중 지방세수 비율로 측정되는 재정자립도는 주민의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또한, 비교적 고가품이며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는 경기상황에 민감하므로, 1인당 자동차 수 자동차는 지역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 의미가 있다(통계청, 2022). 한편, 로그값으로 나타낸 인구는 종속변수(GRDP)를 1인당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총계를 사용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대체로 지역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의 향상에 따른 행복을 측정하는 이들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관계를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를 독립변수로 활용한 허만형(2014)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주민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나 스트레스 인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과정이 지역주민의 주관적 만족도에는 부정적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Ⅳ. 연구결과

1.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실제소득 등 각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식은 변수의 측정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분포가 치우친 경우 로그값을 사용하지만, 표준화된 값을 제외하고 실제 모형에 통제변수로 산입된 실제소득의 경우 표본집단 내에서는 왜도(skewness)가 -.446, 첨도(kurtosis)가 2.85로 일반적인 소득 분포보다 치우친 정도가 덜했다. 따라서 별도의 로그값이 아닌 본래 값을 사용하였다.

〈표 3〉 기술통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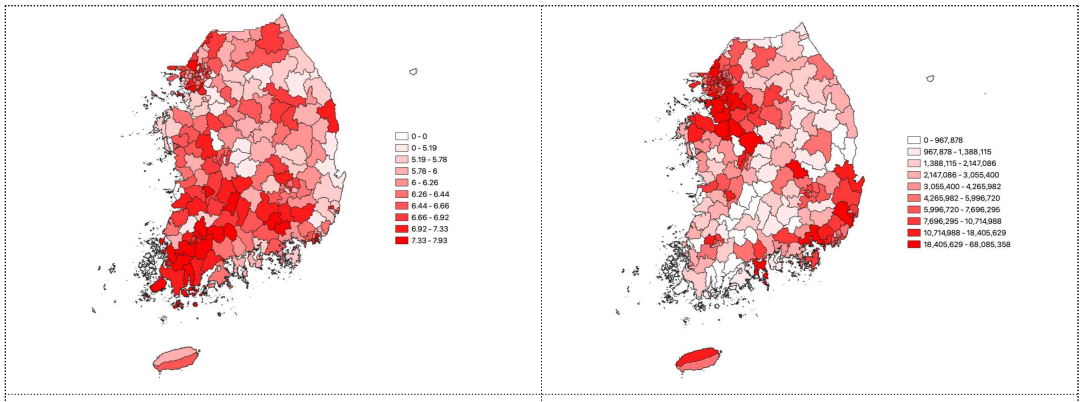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인변수					
행복	6300	6.379	1.298	0	10
실제소득	6300	8.38	2.532	1	15
인식소득	6300	4.578	1.693	1	10
부자의 기준(소득, 단위: 백만원)	6300	1269.51	1193.437	100	30000
소득에 대한 열망(a)	6300	0	1.385	−5.132	4.728
소득에 대한 열망(b)	6300	0	1.319	−24.619	3.511
사회평등	6300	34.258	9.215	4	65
나이	6300	46.54	14.565	19	89
성별(여성=1)	6300	.501	.5	0	1
정치적 성향(보수적=5)	6300	2.85	.926	1	5
학력(대졸이상=1)	6300	0.539	−498	0	1
실업(무직=1)	6300	.027	.163	0	1
건강상태(매우좋다=5)	6300	3.705	.777	1	5
혼인상태(배우자있음=1)	6300	.717	.451	0	1
시군구 거주년수	6300	20.504	16.164	0.16	89
지역변수					
1인당 자동차수	226	0.505	0.153	0.240	1.707
지역 연평균 근로소득(단위:백만원)	226	34.842	6.363	25.404	71.198
GRDP Growth(2015−17 연평균)	226	0.016	0.023	−0.050	0.166
Log(지역총생산)	226	15.265	1.134	12.567	18.036
Log(인구)	226	11.827	1.052	9.193	13.999
재정자립도	226	21.969	32.656	4.000	68.9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 단위 경제 관련 변수는 log(GRDP), 1인당 자동차수, 지역 연평균 근로소득, GRDP성장률, 재정자립도이다. 지역경제에 관련된 여러 지표 중에서 지방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지역 GRDP의 영향력을 걸러내기 위해서 나머지 지표를 통제하였다. 다만 만약 GRDP와 기타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0.6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높은 경우 실질적으로 같은 변수를 중복으로 모형에 산입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결과, 모두 0-0.5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인 단위 변수 중 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변수는 인식소득(0.247)이었으며, 실제소득(0.059), 부자소득(-0.049), 소득에 대한 열망(a)(-0.135), 소득에

대한 열망(b)(0.082) 등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변수는 건강(0.173), 정치적 성향(-0.148)이었다.

〈그림 2〉 기초자치단체 행복 평균값과 GRDP의 분포



주민 행복 평균값의 분포	GRDP의 분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2019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데이터에서 추출한 주민 행복 평균값의 분포와 2017 기초자치단체 GRDP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그림 2〉와 같다. 기초자치단체 당 주민수는 최소 8명(경기 연천군)에서 최대 128명(경남 창원시)이었다. 주민 행복 평균값과 GRDP 모두 10개 등분위를 기초로 도식화하였다. GRDP의 경우 주로 수도권 남동권이 높고 농촌 지역은 낮은 반면, 주민 행복 평균값의 경우 농촌 지역에서도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평균값의 분포로만 보았을 때 주민 행복과 GRDP의 상관성은 없어보인다.

2. 모형추정량

다층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소득에 대한 열망(a)은 행복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열망(b)는 단독으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GRDP 역시 단독으로 지역주민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GRDP가 중간인 지역에서 소득에 대한 열망(a)와 소득에 대한 열망(b)가 모두 음(-)의 관계를 강화하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수준의 변수 중에서는 실제소득이 높을수록, 사회가 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개인의 행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여성일 때,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실업보다는 취업상태일 때, 건강상태가 좋을 때, 배우자가 있을 때, 해당 시군구의 거주년수가 길수록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변수 중에서는 시군구 1인당 근로소득이 중간일 때가 낮은 수준과 비교했을 때 행복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행복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시군구 1인당 근로소득의 경우 주민이 기초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주민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사회비교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초자치단체 외부와의 비교와 방향성이 같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재정자립도의 경우 허만형(2014)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비록 0.1 수준이긴 하지만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된다.

〈표 4〉 다층모형의 추정

	MODEL1	MODEL2	MODEL3	MODEL4
소득에 대한 열망(a)	-.162***	-.162***	-.145***	
	(.018)	(.018)	(.025)	
소득에 대한 열망(b)	-.001	-.002		.023
	(.016)	(.016)		(.024)
logGRDP(중)		-.114	-.119	-.122
		(.146)	(.147)	(.153)
logGRDP(상)		.038	.007	.042
		(.212)	(.213)	(.221)
logGRDP(중)*소득에 대한 열망(a)			-.078***	
			(.03)	
logGRDP(상)*소득에 대한 열망(a)			.033	
			(.03)	
logGRDP(중)*소득에 대한 열망(b)				-.078***
				(.029)
logGRDP(상)*소득에 대한 열망(b)				.006
				(.029)
실제소득(가구 월소득)	.088***	.089***	.088***	.029***
	(.011)	(.011)	(.01)	(.009)
사회평등	.023***	.022***	.023***	.026***
	(.002)	(.002)	(.002)	(.002)
나이	0	0	0	0
	(.002)	(.002)	(.002)	(.002)
성별(여성=1)	.12***	.12***	.118***	.113***
	(.028)	(.028)	(.028)	(.028)
정치적 성향(매우 보수적=5)	-.062***	-.062***	-.061***	-.074***
	(.017)	(.017)	(.017)	(.018)
학력(대졸 이상=1)	.012	.013	.013	.021
	(.036)	(.036)	(.036)	(.036)
실업(무직=1)	-.148*	-.147*	-.146	-.142
	(.09)	(.09)	(.089)	(.09)
건강상태(매우좋다=5)	.145***	.143***	.143***	.136***
	(.021)	(.021)	(.021)	(.021)

혼인상태(배우자있음=1)	.094**	.093**	.09**	.114***
	(.039)	(.039)	(.039)	(.039)
현 시군구 거주년수	.004***	.003***	.003***	.003**
	(.001)	(.001)	(.001)	(.001)
시군구 1인당 근로소득(중)		-.199*	-.192*	-.187*
		(.106)	(.106)	(.11)
시군구 1인당 근로소득(상)		-.139	-.134	-.127
		(.141)	(.142)	(.148)
1인당 자동차수		-.132	-.11	.025
		(.322)	(.324)	(.335)
GRDP 성장률(15-17 3개년평균)		-.794	-.697	-.75
		(1.859)	(1.869)	(1.941)
log인구		.117	.122	.124
		(.077)	(.078)	(.081)
재정자립도		-.012*	-.012*	-.013**
		(.006)	(.006)	(.007)
_cons	4.317***	3.369***	3.309***	3.661***
var(_cons)	(.174)	(.939)	(.943)	(.977)
var(Residual)	-.516***	-.549***	-.543***	-.501***
Observations	(.056)	(.057)	(.057)	(.056)

*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p〈.01, ** p〈.05, *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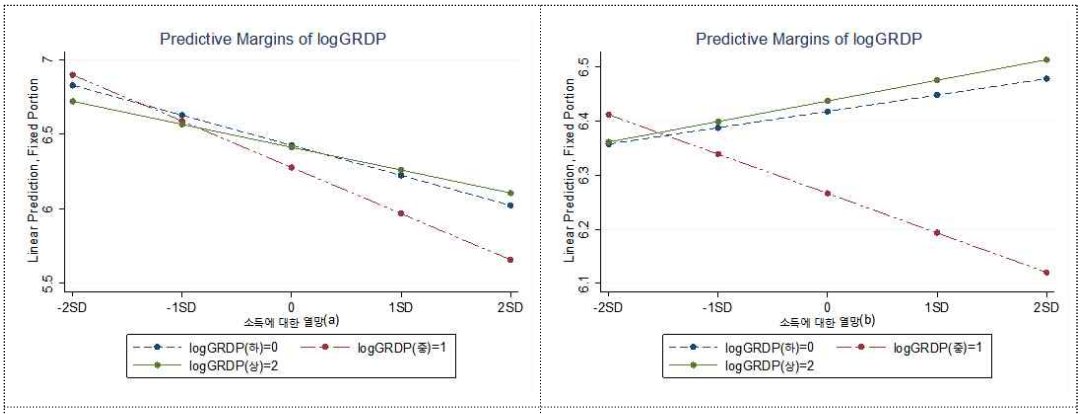
소득에 대한 열망과 GRDP의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해보면 〈그림 3〉과 같다. GRDP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그래프는 비슷한 경향성을 띠고 움직이는 가운데, GRDP가 중간인 기초자치단체는 이와 대조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다. 즉 GRDP가 중간 수준인 지역은 소득열망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행복이 감소한다.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소득에 대한 열망(a)에 대하여 GRDP가 중간 수준인 지역에 속한 주민들의 행복은 6.86(-2SD)에서 5.62 (+2SD)로 떨어지는데, 이는 행복을 묻는 척도가 0-10사이에서 1점 단위의 간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 단위를 넘기는 값으로, 작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소득에 대한 열망(b)에서 GRDP가 중간 수준인 지역에 속한 주민들의 행복은 6.38(-2SD)에서 6.08(+2SD)로 떨어지는데, 이는 소득에 대한 열망(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하락폭이지만 GRDP가 높은 수준인 지역과 낮은 수준인 지역에서 오히려 행복이 증가함을 고려했을 때 흥미롭다. GRDP가 높은 수준인 지역은 6.38(-2SD)에서 6.49(+2SD)로, GRDP가 낮은 수준인 지역은 6.36(-2SD)에서 6.51(+2SD)로 주민들의 행복이 증가하는 한계효과를 보였다. 특히 소득에 대한 열망(b)와 GRDP가 각각 행복에 대한 단독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순수조절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 가설 중 가설 2-2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의 경제수준이 중간인 환경에서 소득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소득열망은 행복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의 경제수준이 중간인 지역에서는 원숭이가 쌀을 쥔 자신의 주

먹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 관계의 크기가 더 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거주지역이 주민에 미치는 도시 수준의 근린효과(Friedrichs et al., 2003)는 거주지역의 GRDP에 대한 주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운데, 특히 GRDP가 중간 수준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지역의 경제수준이 소득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음(-)의 영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즉, 사회비교이론과 지역 정체성 개념을 적용해보면, GRDP가 중간 수준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에 자신의 소득 내지 부(富)와 상관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윗방향과 아랫방향으로 사회적 비교의 강도가 더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3〉 log(GRDP)의 조절효과



소득에 대한 열망(a)*log(GRDP)의 조절효과	소득에 대한 열망(b)*log(GRDP)의 조절효과

V. 결론

지역화와 소득불평등화가 심화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는 다양한 층위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국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던 경성성과인 경제성과와 연성성과인 행복 간의 역학을 소득에 대한 열망을 중심으로 국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외 문헌의 결과(Stutzer, 2003)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한 열망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GRDP는 소득에 대한 열망에 대한 측정 방식과 상관없이 중간 수준일 때 음(-)의 조절 효과가 강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소득에 대한 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2 수준 모형인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행복이 약 30% 가량 좌우됨을 밝힘으로써, 기초지방정부가 특정 정책을 펼칠 때 주민의 행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높을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국외 문헌과 일관되게 소득에 대한 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힘으로써, 이론의 보편성 획득에 일부 기여하였다. 둘째, 소득에 대한 열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여 현재 대리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충분소득

(Keller, 2019) 혹은 부자소득(van Praag, 1993)과 다른 방식의 변수 설정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이러한 측정은 단년도 설문조사에서 동일방법편의(common source bias)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강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한국에서 공공부문의 정책목표로서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장을 중요시하는 정책환경 하에서 객관적 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의 행복은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 본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에 기초하여,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의 격차에 대한 정책적 분석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특히 지역별 격차도 상당함을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활동의 궁극적인 결과로서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소가 복합적이고,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는 한계가 있으나, 정부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에 경제성과뿐만 아니라, 주민의 행복과 관련한 요소도 중요하게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 GRDP 수준이 낮거나 높은 지역보다 오히려 중간인 지역에서 소득에 대한 열망이 행복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 경제 발전 주기에 따라 주민 행복에 대한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에 대한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요인을 밝히지는 못한바, 후행 연구에서 가능할 것이다. 특히 최근 통계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제 불평등도와 같은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GRDP와 더불어 GRDP 성장률, 1인당 자동차 수 등 경제변수 단독으로는 주민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의 행복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을 펼칠 때 주민의 심리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성 지표에만 천착한다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에 대한 열망(b)의 경우 주민의 심리 상태 역시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경성성과와 주민 개인에게서 인지되는 연성 성과의 특정 조합이 주민의 심리 경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에 대한 열망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 변수 처리로 표준화를 선택했으며 이는 2차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자의 한계라 할 것이다. 만약 후속 연구에서 연구의 디자인부터 설문설계를 할 수 있다면 실제 소득, 인식 소득, 부자 소득에 대한 척도를 통일하여 반응표면분석(response surface analysis)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의 경제수준과 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 혹은 부(富)에 대한 정체감(identity)은 상식적으로는 오랜기간 통용되어왔으나 이에 대한 실증은 부족했다. 따라서 지역 GRDP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는 지역 GRDP보다는 오히려 지역 주민의 평균소득을 비교하는, 즉 기초자치단체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생산하는 지역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을 통제변수로 산입하였다. 마찬가지로, 지역의 평균소득 역시 중간 수준일 때만이 음(-)의 외부효과를 갖고 있었다(Deaton & Stone, 2013). 이 결과는 주민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열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속집단(membership)을 가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 혹은 높은 수준보다 소득 비교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중간 수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해석은 후속 연구에서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기춘. (2019). 종합지표 작성 방법 및 적용: 우리나라 지역별 좋은 일자리 지수.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 153-159.

강명세·마인섭. (2014). 중간계급 비교연구 1979-2010. 「유럽연구」, 32(1), 23-56.

강상진. (2003). 교육학의 미래와 다층모형. 「한국교육」, 30(3): 437-456.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강인재·김태중. (2007). 한국의 지역내총생산 작성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12(2): 149-74.

강형기·허훈. (1999). 지방자치단체 경영혁신을 위한 표준평가모델의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1): 79-93.

강혜진·이민아. (2019). 사회신뢰와 대인신뢰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삶의 질 매개효과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8(1): 329-361.

고명철·최상옥. (2012). 삶의 질 (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26.

곽현근. (2008).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 (4): 59-86.

구교준. (2020). 행복: 정책담론의 새로운 플랫폼. 「정부학연구」, 26(2): 3-27.

구교준·이희철·김지원·박차늠. (2020). 주관적 행복과 객관적 삶의 질 차이의 지역분포 분석: 지역역량 (regional Capability) 의 관점에서. 「정부학연구」, 26(1): 162-182.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국회입법조사처. (2017). 기초자치단체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장조사보고서 51.

김명소·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김범준. (2016). 사회계층의 심리: 문화적 사고성향 (분석적-종합적 사고) 과 사회비교성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4), 19-36.

김병섭·강혜진·김현정. (2015). 지방정부서비스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주거영역 삶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3(3): 29-56.

김병섭·안선민·이수영. (2015). 거시적 사회경제요인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분석: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논총」, 53(2): 97-121.

김성주·이선영. (2006). 「GRDP 추계방법과 활용상의 문제점」. 부산발전연구원.

김을식·이지혜. (2015). 시 · 군의 경제력 지표,'1 인당 GRDP'의 보완 방안 연구: 보완 지표 개발과 타당성 검토. 「한국지역경제연구」, 13(3): 37-60.

김종희. (2010). GRDP (지역내 총생산) 추정을 통한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분석. 「지방행정연구」, 24(1): 207-235.

김현정. (2016). 소득불평등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계층상승 가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559-587.

박완규·김두수. (2014). 재정변수 및 비재정변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6 개 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 (3): 554-566.

변미리·최정원. (2016). 서울 시민의 행복 메커니즘: 시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조사연구」, 17(2): 61-84.

신현재·김병섭. (2019). 정부의 기능별 지출구조가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행정논총」, 57(3): 63-88.

양승호. (2014).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양재진·이호연·이정주. (2016).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75-102.

엄영호·엄광호. (2017). 지역에 대한 애착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2): 145-69.

우창빈.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이경영·정문기. (2021).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차이 분석: 전라북도 경제활동인구(만25세-49세) 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0(2): 203-27.

이내찬. (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5-40.

이상록. (2012). 소득계층간 주거지 분리의 거주지역 특성이 저소득빈곤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4): 277-302.

이연경·이승종. (2017). 사회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5 (1): 1-39.

이창원·최창현·권해수. (1998).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 계층분석절차 기법을 이용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 「한국행정학보」, 32(1): 129-145.

이현국·김윤호. (2014). 정부서비스 성과와 정부신뢰: 서울시 정부서비스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8(4): 1-22.

이현국·이민아. (2014).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한국행정학보」, 48(2): 293-315.

이현송. (2006). 미국 사회의 중간계층과 불평등 구조의 변화: 성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역할과 사회발전 제1차 포럼」, 29-43.

이효진·윤홍식·한학. (2021). 사회재난 지표별 등급화 기법 비교: 가축질병을 중심으로.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7(2): 319-328.

임성일. (2013). 지역 간 경제력 격차문제에 대한 접근: 격차측정기준과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를 중심으로. 「응용경제」, 15(2): 175-210.

전성표. (2006). 배분적 정의, 과정적 정의 및 인간관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들의 공평성 인식과 평등의식. 「한국사회학」, 40(6): 92-127.

정민지·김나경·박미소·윤홍주. (2021). 동해의 해양침적쓰레기 성상 및 공간 분포 특성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7(2), 295-307.

정지범. (2011).「국민 행복 결정 요인 분석 및 제도적 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한울·이양호·이정진. (2018).「지역정체성과 지역 불평등 인식 보고서」,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 한국리서치.
조연상. (2012). 행복지수와 한국 재정정책 방향-행복한 나라 만들기.「재정정책논집」, 14(4): 3-30.
최영출. (2014). 사회정책적 요인이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OECD를 중심으로.「한국비교정부학보」, 18(1): 1-22.
한인섭·임채홍·김정렬. (2017). "국민행복의 국가별 수준 비교: 국가레짐 및 거버넌스와 삶의 질에 대한 실증분석.「행정논총」, 55(2): 33-66.
허만형. (2014). 지방정부의 삶의 질 영향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지방정부연구」. 18(3): 231-254.

뉴시스, 하동군, 2019년 기준 GRDP 추계결과 경남도내 2위, 2022. 1. 5.
동아일보, 전교생 449명중 한국인 초등생은 여섯명뿐…'공존:그들과 우리가 되려', 2022. 1. 17.
문화일보, 남구 GRDP 71조8530억 서울 자치구중 1위… 강북구의 22배, 2022. 1. 13.

Alesina, A., Di Tella, R., & MacCulloch, R. (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9), 2009-2042.
Becker, G. S. (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1063-1093.
Benjamin, D. J., Kimball, M. S., Heffetz, O., & Szembrot, N. (2014). Beyond Happiness and Satisfaction: Toward Well-Being Indices Based on Stated Prefer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4(9), 2698-2735.
Bernard, van P., & Frijters, P. (1999). The measurement of welfare and well-being; the Leyden approach.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413-433). Russell Sage Foundation.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8), 1359-1386.
Bok, D. (2010). The politics of happin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Brickman, P., Coates, D., & Janoff-Bulman, R. (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 victims: is happiness rela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8), 917-927.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31(2), 117-124.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https://deepblue.lib.umich.edu/handle/2027.42/99207
Chaskin, R. J. (1997). Perspectives on Neighborhood and Commun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Social Service Review, 71(4), 521-547.
Clark, A. E. (2003). Unemployment as a Social Norm: Psychological Evidence from Panel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1(2), 323-351.

Clark, A. E., & Oswald, A. J. (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The Economic Journal of Nepal, 104(424), 648-659.

Clark, A. E., & Oswald, A. J. (1996). Satisfaction and comparison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3), 359-381.

Deaton, A., & Stone, A. A. (2013). Two Happiness Puzzl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591-597.

Delhey, J., & Dragolov, G. (2013). Why Inequality Makes Europeans Less Happy: The Role of Distrust, Status Anxiety, and Perceived Conflic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2), 151-165.

Di Tella, R., & MacCulloch, R. (2005). Partisan social happines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2), 367-393.

Di Tella, R., & MacCulloch, R. (2006). Some Uses of Happiness Data in Economic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A Journal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1), 25-46.

Diener, E. (2006). Guidelines for National Indicator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I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4), 397-404.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A. David, & M.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pp. 89-125). Elsevier.

Easterlin, R. A.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 35-47.

Easterlin, R. A.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of Nepal, 111(473), 465-484.

Ferrer-i-Carbonell, A. (2005). Income and well-be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mparison income effec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 997-1019.

Ferrer-i-Carbonell, A., & Ramos, X. (2014). Inequality and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8(5), 1016-1027.

Frank, R. H. (1985). The Demand for Unobservable and Other Nonpositional Good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5(1), 101-116.

Frederick, S., & Loewenstein, G. (1999). 16 Hedonic adaptation.In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302-329), NY: Russell Sage.

Frey, B. S. (2010). 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 MIT Press.

Frey, B. S., & Stutzer, A. (1999). Measuring Preferences by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JITE = Zeitschrift Fur Die Gesamte Staatswissenschaft, 155(4), 755-778.

Frey, B. S., &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Economic Journal, 110 (466), 918-938.

Frey, B. S., & Stutzer, A. (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402-435.

Friedrichs, J., Galster, G., & Musterd, S. (2003). Neighbourhood effects on social opportunities: the European and American research and policy context. Housing Studies, 18(6), 797-806.

Gelman, A. & Hill, J. (2012). Missing-data imputation, Data Analysis Using Regression and Multilevel/Hierarchical Mod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29-544.

Granato, J., Inglehart, R., & Leblang, D. (1996). The effect of cultural values on economic development: Theory, hypotheses, and some empirical tes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3), 607.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4). Multivariate data analysis: Pearson new international edition. Essex: Pearson Education Limited.

Helm, D. T. (2000). The measurement of happines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05(5), 326-335.

Heuer, R. J. (1999). Psychology of Intelligence Analysis. Center for the Study of Intelligence.

Iceland, J., & Wilkes, R. (2006). Does socioeconomic status matter? Race, class, and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Problems, 53(2), 248-27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0). World economic outlook.

Jakubow, A. (2014). State intervention and life satisfaction reconsidered: The role of governance quality and resource misallocation. Politics & Policy, 42(1), 3-36.

Kahneman, D., Diener, E., & Schwarz, N. (1999). Well-Being: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Russell Sage Foundation.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Schwarz, N., & Stone, A. A. (2006). Would you be happier if you were richer? A focusing illusion. Science, 312(5782), 1908-1910.

Keller, T. (2019). Caught in the monkey trap: Elaborating the hypothesis for why income aspiration decrease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3), 829-840.

Killingsworth, M. A., & Gilbert, D. T. (2010). A wandering mind is an unhappy mind. Science, 330(6006), 932.

Kozma, A., & Stones, M. J. (1980). The measurement of happiness: development of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 (MUNSH). Journal of Gerontology, 35(6), 906-912.

Lane, R. E. (2000). Diminishing returns to income, companionship-and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103-119.

Lawler, S. (2015). Identity: Sociological Perspectives. John Wiley & Sons.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Penguin UK.

Luttmer, E. F. P. (2005). Neighbors as negatives: Relative earnings and well-be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3), 963-1002.

McNeish, D. M., & Stapleton, L. M. (2016). The effect of small sample size on two-level model estimates: A review and illustr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8(2), 295-314.

Nettle, D. (2006). Happiness: the science behind your smile. Clinical Medicine , 6(2), 214-214.

OECD. (2020).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0. OECD Publishing.

Oishi, S., Diener, E., & Lucas, R. E. (2009). The Optimum Level of Well-Being: Can People Be Too Happy? In E. Diener (Ed.), The Science of Well-Being: The Collected Works of Ed Diener (pp. 175-200). Springer Netherlands.

Oshio, T., Nozaki, K., & Kobayashi, M. (2011). Relative income and happiness in Asia: Evidence from nationwide surveys in China, japan, and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4(3), 351-367.

Oswald, A. J. (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of Nepal, 107(445), 1815-1831.

Ott, J. C. (2010). Good governance and happiness in nations: Technical quality precedes democracy and quality beats siz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3), 353-368.

Ott, J. C. (2011). Government and happiness in 130 nations: Good governance fosters higher level and more equa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2(1), 3-22.

Parducci, A. (1995). Happiness, pleasure, and judgment: The contextual theory and its applications. 225.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Rath, T., Harter, J. K., & Harter, J. (2010). Wellbeing: The Five Essential Elements. Simon and Schuster.

Rayo, L., & Becker, G. S. (2007). Evolutionary Efficiency and Happines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5(2), 302-337.

Schooler, J. W., Ariely, D., & Loewenstein, G. (2003). The pursuit of happiness can be self-defeating. The Psychology of Economic Decisions. Oxford University Press.

Schyns, P. (1998).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happiness: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explored. Social Indicators Research, 43, 3-26.

Smith, P. (1996). A framework for analysing the measurement of outcome. Measuring Outcome in the Public Sector, Taylor&Fransis, 1-19.

Stutzer, A. (2004). The role of income aspirations in individual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4(1), 89-109.

Stutzer, A., & Lalive, R. (2004). The role of social work norms in job searching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2(4), 696-719.

United Nations. (2020). The 2020 Human Development Report. United Nations Development.

United Nations. (2021).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21: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Post-Covid World-Learning from 50 Years of Experience.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Van Praag, B. M. S. (1993). The relativity of the welfare concept. In Nussbaum, MC & Sen, A.

(Eds.), The quality of life (pp.363-392), Oxford: Clarendon Press.

Van Praag, B. M. S., & Kapteyn, A. (1973). Further evidence on the individual welfare function of income: An empirical investigatiion in The Netherlands. European Economic Review, 4(1), 33-62.

Veenhoven, R. (1993). Happiness in nations: 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 in 56 nations 1946-1992,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Veenhoven, R. (2012).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happiness: Cultural measurement bias or effect of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2(4), 333-353.

Veenhoven, R. (2013). Conditions of Happines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Veenhoven, R. (2014). Need Theory. In A. C. Michalos (Ed.), Encyclopedia of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Research (pp. 4293-4295). Springer Netherlands.

Winkelmann, L., & Winkelmann, R. (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257), 1-15.

김필(金筆):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정책학 박사, 2021)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박사 학위 논문은 “시민의 기대와 정부성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기대불일치 관점“이며,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인사행정, 성과관리, 정부신뢰 등이다. 최근의 논문으로 “Workplace Disrup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HRM Practices to Enhance Employee Resilience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2022(출간예정))”, “Which Combination of HRM and National Culture Optimizes Govenment Effectiveness?(Journal of Policy Science, 2022(출간예정))”, “정부신뢰와 참여: 제도적 혁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한국행정학보, 2021)”등이 있다.(feeling1@snu.ac.kr)

최한별(崔한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2021)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공공관리, 디지털정부, 도시정책 등이다. 최근의 논문으로 “Analysis of Digital Governance Transi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for Government Innovation(Journal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2022)”,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 내용 분석: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 2021)”등이 있다.(chb@snu.ac.kr)

〈논문접수일: 2022. 1. 24 / 심사개시일: 2022. 1. 25 / 심사완료일: 2022. 2. 11〉

Abstract

The Effect of Income Aspirations on Happiness: Focusing on GRDP differences

Kim, Phil

Choi, Hanbyul

The happiness of residents is a public performance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ursue. The regional economic level acts as an identity of income or wealth, influencing the effect of residents' perception of relative income on happines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income aspirations on happiness by applying a multilevel analysis focusing on Gross Regional Development Product(GRDP).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esire for income measu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and recognized incom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happiness. In addition, the negative moderating effect of GRD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income aspiration of residents in intermediate level districts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of residents in low or high level of GRDP districts. This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approach the effect of income aspiration on happines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GRDP levels.

Key Words: Happiness, Income, Income Aspiration, GRDP, Analysis of Competing Hypothesis(ACH)